

경제위기 하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생산성*

-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as a buffer in the case of economic crisis

- Based on newspapers during the IMF regime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윤 미 림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Lee, Ki yo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Yun, Mi Rim

〈목 차〉

- | | |
|---------------------------------|-------------------|
| I. 서론 | V.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 |
| II.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가정과 주부 역할의 부각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empirically by analyzing the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financial aid from the IMF. During this period, Korean Households experienced severe income decrease and jobless increase, so they had to cut expenses. And Korea government also wanted to share the burden of overcoming the currency crisis with households. Theoretically, Home economists has approved the productivity of housework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by reducing cost of labor reproduction. So this article try to verify the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productivity of housework by analyzing if there was public demand of housework as a means of reducing expenses during the IMF regime, based on newspaper articles.

The major finding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during the IMF regime, Households and housewives were described as an agent of overcoming economic crisis in newspaper articles. Second, households were required to substitute money expenses for housework to cut expenses. These results show that housework has worth as a productive labor and contribute to society and households as it increases the worth of wage and decreases the cost of living.

◆ key word: 가사노동, 노동력 재생산노동, 생계생산노동

I. 서론

본 연구는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며, 현 사회 체제에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학과 여성학 등에서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다. 두 학문 분야는 가사노동이 사적인 장소인 가정에서 수행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산적인 노동임에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에 의해서 무급으로 수행됨으로 인해서 이를 수행하는 여성의 지위를 낮추며 또한 이것은 여성의 시장노동참여에서의 불이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성학에서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가사노동과 임금노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사노동이 노동력상품의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주장하여 왔다(김정선, 1992; 김혜경, 1985; 이기영·송혜림, 1993; 홍승아, 1998; Lise Vogel, 1983: 232-237).

한편 가정관리학에서는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접근도 일부 있어왔으나(문숙재·윤소영, 1996; 송혜림, 1993; 송혜림·이기영, 1990; 이기영·송혜림, 1993; 홍승아, 1998), 그보다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이나 상해와 관련된 여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구들이 보다 증가 되어왔다(김정희, 1993; 문숙재·

정영금, 1991; 문숙재·정영금, 1993; 정영금, 1989; Chadeau, Ann, 1985; Goldschmidt-Clermnot, L., 1982).

이렇듯 가정관리학 분야에서는 여성 개인보다는 가사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주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에 필수적 노동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과 공식적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지와 실천적 뒷받침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행해진 위와 같은 노력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사회적 중요성이 경험적·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기영·송혜림(1993)에 의해서 지적된 것처럼 가사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가사노동의 화폐적 평가나 임금 등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여성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노동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비가시적인 그늘경제의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가시적인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증명하고 공사 분리의 허구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접어든 1997년 말에서 1999년 말까지 약 2년 동안을 분석 시기로 정하였다. 주

지하는 것처럼, 이 기간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국제 통화기금체제에 접어들어 따라 소득의 격감과 실직의 급증으로 가계의 노동력재생산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시기이다. 본 논문은 이 시기에 감소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인 요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노동력 재생산은 임금으로 구입된 상품에 가사노동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가사노동은 이 과정에서 사용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임금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통의 경우 가사노동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체제 하의 한국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 또는 기업은 위기극복의 비용을 개별 가계에게 부담시키고자 정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체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임금 수준을 낮추었으며, 실업 또한 증가하였다. 만약 이론적인 주장과 같이 가사노동이 임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경제위기 하에서 가사노동이 갖는 완충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가정과 가사노동이 공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며, 경제위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늘리라는 공적인 요구가 행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체제동안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정 및 주부의 역할과 가사노동이 강조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 시기 중앙일간지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신문은 그 시기에 가장 공적이며 대중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만 주장되어 온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힘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에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공사 분리의 허구성을 밝히고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

가사노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운데서도 노동력

재생산노동 그리고 생계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보는 관점은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보는 관점이 임금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력상품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주장한다면, 생계생산노동의 개념은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상품노동력의 생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생활을 생산하는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정의하고 있다.

1.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노동력 재생산은 노동자 계급이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 대가로서 지불된 임금을 가지고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소비자료를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가족과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정선, 1992: 12).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임금-혹은 임금이 구입한 상품에 부가되어 이를 직접 소비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노동으로 정의된다(김혜경, 1985: 61).

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는 해도, 가사노동의 가치 창출과 생산성은 부정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생산성'은 그 노동의 사회적 유용성 혹은 필요성과는 구별되는 의미로, 그의 가치론에 입각해 볼 때,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적 노동방식에 의해 생산되거나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또 상품 경제의 외부에 존재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른 교환비율을 갖지 못한다. 자본과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리 유용하고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이라 해도 생산적 노동은 아니라고 본다(P. Smith, 1978: 187-192). 이는 결국 가사노동의 무보수성, 즉 시장가격을 갖지 못한 가사노동의 특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부정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부차적 지위의 뿌리는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에 있다고 보고 가사노동의 생산성

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해 최초로 이론적 논의를 제기한 Benston은 가사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가족은 기본적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하는 생산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Vogel, 1983 : 232). Dalla Costa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가사노동이 가족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할 능력인 필수적인 상품노동력을 생산하므로, 주부들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자이며, 주부들이 생산한 잉여는 임금지불 과정을 통해 자본가에게 전유된다고 까지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다(Vogel, 1983: 235).

가사노동이 잉여가치를 낳는다는 Costa의 주장은 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많은 비판을 불러왔으며, 이후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에서 이른바 가사노동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노동력재생산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이 생산적인가 아닌가하는 논쟁은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가치'를 갖는가 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보다 분명한 것은 임금을 매개로 한 생활수단의 구입·소비만을 통해서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구입된 생활수단이 주부에 의한 여러 차원의 가정 내 활동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됨으로써만 노동력재생산이 가능한 것이다(김정선, 1992: 47).

한편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무급가사노동의 존재는 노동력 재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임금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이 생산한 가치가 임금의 형태로 가계에 돌아가지 않고 초과이윤의 형태로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은 임금을 낮춘다고 말해 질 수 있으나, 임금수준을 실제보다 높인다고도 말해 질 수 있는 것이다(Carmen D. Deere, 1976: 161-178).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이 갖는 기능은 노동력 재생

산비를 낮추거나 임금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의 변화 방향은 분명하다. 즉 가사노동이 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임금수준이 낮아질 경우 이를 더 많은 가사노동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낮아진 임금에 대한 개별 가정에서의 적응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의해서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노동력 재생산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갖는 의의·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개별 가정에 전가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생산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경제 위기 하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사노동을 통해 낮아진 임금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가사노동이 가정 내에서 그리고 주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가정과 주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이 갖는 생산성과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해당 시기에 주부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가사노동 증가에 대한 공적인 요구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생계생산으로서의 가사노동

생계생산으로서 가사노동을 보는 입장은 노동력 재생산노동으로서만 여성의 가사노동을 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생계생산론자들은 여성의 활동은 상품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생산을 자본주의에서 가치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가사노동으로 "가족구성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즉 인간의 재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 정의한다(C. v. Werthof · M. Mies · V. Bennholdt Thomsen, 1982: 224). 이러

한 생계생산에는 임신·출산, 생후의 직접적 유아 양육 등의 세대 재생산, 아동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양육·교육하는 사회화의 재생산, 가족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양하고 소모된 노동력을 재창조하며 피고용자·잠재적 피고용자·병든 노동력·노쇠한 노동력을 돌보는 재생을 위한 재생산 등이 포함된다. 소농의 농업재생산, 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 소상인의 생산, 생계생산의 가장 현대적 형태인 도시 지역의 가정주부 노동 등이 생계생산의 대표적 예로(C. v. Werlhof et als, 1982: 233-235), 생계를 위한 모든 생산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자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무보수의 노동시간은 자본의 잉여로 축적되며, 노동자들도 그들이 자체의 재생산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노동력을 보다 자본에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C. v. Werlhof et als, 1982: 266-272).

Stauth는 생계생산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임에도 그 생산적 특성이 모호하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하여 생계생산은 생물학적, 인류학적 편견-즉 역사적으로 여성이 생계생산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계생산에 대한 축정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회가 생계생산에 대해서 양적인 중요성보다는 규범적인 중요성만을 부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G. Stauth, 1984: 313).

이상의 생계생산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생계생산 노동은 노동력재생산노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품노동력의 재생산을 넘어선 인간재생산의 개념으로 가사노동을 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생계생산의 개념을 통해 볼 때, 여성의 생물학적 생산과 심리적 노동, 소농과 소상인의 자급적 생산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용자 가치 생산이 가사노동에 포함된다.

생계생산론과 노동력 재생산론의 주된 차이점은 가사노동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관계된 것이다. 마르크스가 임금노동이외의 모든 노동을 전자본주의적 노동으로 보아 소멸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생계생산론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생계생산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 Mies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의 생계생산을 이용하여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잉여를 축적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 합리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더 작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생계생산에 의존하게 된다(C. v. Werlhof et als, 1982: 97-117). 즉, 생계생산론을 통해 볼 때 경기 후퇴나 실직 등의 경제위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I. Lenz는 생계유지 생산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자본축적에 대하여 직접적 종속, 혹은 방어적 순응, 혹은 직접적 저항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C. v. Werlhof et als, 1982: 236). 이와 관련하여 Stauth는 경기 수축시기의 생계생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여, 본 논문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계의 수입이 생계 경제에만 의존해서 사는 가계(생계보루 가구)들이 있으며, 또 한평생 임금에만 의존하는 가계(전생애 프롤레타리아가구)가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사들인 '상품'에 의존해서 살아가며, 생계생산은 사용자치만을 부가한다. 또한 이 양극의 연속선상에 시장판매로부터의 수입과 생계생산에서 얻은 수입(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생산)으로 수입이 나누어지는 가구가 있다. 그는 경기 수축 과정이 전생애 프롤레타리아 가구에서 생계보루 가구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경기 수축시 임금이 감소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가계는 생산·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생산을 늘리게 된다. 이처럼 생계생산은 경기 수축의 시기에 경제체계를 안정시키는 영역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가정이 생산·재생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측면과 체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생계생산의 개념을 통해 볼 때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즉 가사노동-생계생산이 갖는 완충적 기능을 통하여 세계경제 체제의 모순 속에서도 가계의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가계는 생존해야 하므로 생계생산을 늘리게 되고 이는 전체 경제 체계의 이해와도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Stauth가 가계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구제'에 책임지는 단위(Stauth, 1984: 310)라고 선

연한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생산노동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정의하게 되면 경제위기에서의 주부와 가사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노동력 재생산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인식이 가능하다. 저임금 또는 실직 상황에서도 노동력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가계 차원에서 가사노동을 늘릴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넘어서서 세계비 이하의 낮은 임금으로 인간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가사노동이 늘어나는 것 또한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서 경제위기기에 대한 세계생산의 대응이 가계의 순응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세계생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C. v. Werlhof에 의하면 자본은 비싸게 먹히는 임금노동대신에 가사노동을 보편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C. v. Werlhof et als, 1982: 139). 그의 이러한 지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될 수 있는 한 적은 수의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가능한 무보수의 세계생산-즉 가사노동에 의존하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위기 시기에 마지막 보루로서 가정과 주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가사노동이 강조되는 것에 대한 탁월한 이론적 설명으로 보인다. 세계생산론은 사회 또는 경제체제가 가족의 삶을 위한 여성의 희생정신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신문 기사를 자료로 하여 경제위기 하에서 주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감소된 소득으로 가계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과 주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강조와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신문 기사를 텍스트로 삼았다. 신문기사는 대표적인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집적되어

보고되는 동시에 일정 시기에 가장 공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는 시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하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를 살펴보면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질적인 시각으로 주부 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적 한정된 시기동안인 국제통화기금 체제 동안 경제 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가정과 주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소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적인 요구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인 시각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시기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 11월 21일에서 1999년 말까지의 약 2년간으로 하였다.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것은 1999년 9월 9일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경제위기의 극복여부 또는 경제위기의 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분석기간을 1999년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10개의 종합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와 4개의 경제지-내외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텍스트로 삼은 것은 모두 110개의 기사로, 주로 생활·여성면과 경제면의 IMF체제관련 기획물과 사설·논단 등이다. 이러한 기사를 통하여 본문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의 주체 또는 위기의 책임자로 가정과 주부의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었으며, 가계의 지출을 절감하면서도 가정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주부와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에는 식생활과 관련된 일, 주생활과 관련된 일, 의생활과 관련된 일 및 장보기, 가계관리, 자녀양육, 가족돌보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된다(이기영·석드보라, 1999; 조

미환·임정빈, 199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IV.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가정과 주부 역할의 부각

한국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로 갑자기 접어들어 따라 가계의 노동력재생산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 시기 한국 가계가 처한 상황은 소득의 격감, 실직의 급증, 물가의 앙등, 이로 인한 내핍생활 등 4중고로 묘사할 수 있다.

통계청(1998a) 에 의하면 '98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백23만2천원으로 '97년 1.4분기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체감 소득감소율은 더 커서 한국소비자보호원(1998)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IMF전후 월평균 가계소득이 2백13만원에서 1백63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8년 1.4분기에 생활물가지수는 '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0%나 증가하여 가계 경제를 더욱 위기에 빠뜨렸으며(통계청, 1998b), 98년 6월 취업자수도 97년 6월에 비해 5.6%가 감소하였다(통계청, 1998c).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결국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계속되는 가정의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인 동시에 경제위기를 이겨낼 동인으로서, 이 시기 신문기사에서는 그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되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이다. ... 일시적 위기를 넘기지 못해 설령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족간에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힘들어하는 가장과 주부를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자녀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자상함이 긴요하다(한국일보, 1998.5.1), 미국의 개척정신, 유럽의 전통정신, 일본의 무사도정신이 있다면, 한국은 효도정신이 있다. ... IMF의 구제금융으로

한국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간의 결속이 요구된다. '효도'를 바탕으로 굳게 뭉쳐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국민일보, 1997.12.6), 경제 폭풍으로 인한 가정붕괴와 가족해체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면서 가정의 기존 가치와 의미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가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가정 도덕이 붕괴되면 국가질서가 붕괴된다. 그래서 가정은 국가의 모판이며 사회구성의 원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 빨리 가정의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매일, 1999.5.17).

위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 가정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현상은 각 가정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위기의 책임이 일정 부분 가정에도 있음이 동시에 부각된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과실 때문이나, 국민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무절제한 과소비와 사치 풍조를 볼 때 그 책임의 일부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2백37억달러의 사상 유례 없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백4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분석이다. 무분별한 해외여행, 값비싼 외제 선호, 에너지와 음식물 낭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과소비도 적자를 초래한 큰 요인 가운데 하나다(대한매일, 1997.11.24),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가정내 가구·의류·생활용품 그리고 식생활 등에서의 외제품 점유율은 이미 지난 94년에 50%를 넘어섰고 현재는 약 62.4%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에서의 외제품 사용율은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등에서의 80~90% 선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서울경제, 1997.12.16).

이처럼 가정은 경제 위기의 원인 제공자이며, 따

라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응해야하며 또한 이를 극복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동시에 말해진다.

누구 탓이나를 따지기 앞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해외여행 자제 등으로 아끼고 덜 쓰는 것만이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중앙일보, 1997.12.6), 불황을 이기는 데는 정부와 기업, 가정이 따로 없다. 큰 것, 새 것, 편한 것은 멀리하고, 작은 것, 낡은 것, 불편하지만 싼 것들에 눈길을 줘야한다(조선일보, 1997.12.9),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짧은 기간 안에 IMF시대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개인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생활 속의 거품을 빼면서 합리적인 소비체로 거듭나야 합니다(경향신문, 1997.12.27).

한편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문기사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주부로 설정되어 있다. 조선일보는 주부들의 과소비행태를 지적한 후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주부의 48%가 경제위기에 책임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것을 꾸짖고 있으며(조선일보, 1997.12.9), 매일경제도 어느 주부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주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호강했죠.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몰려다니며 먹으러 다니고... 사실 IMF는 남자들보다 오히려 사치하고 허영스럽던 여성들 책임이 크다고 봐요(매일경제, 99.1.8).

이와 같이 소비를 담당하는 주부는 과소비의 주범으로서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계관리자인 주부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주체로도 설정되었다. 즉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주부의 손끝에 달려있으며(세계일보, 1997.12.5), 무엇보다 가계를 직접 꾸리는 주부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경향신문, 1997.12.27).

이처럼 이 시기 신문기사는 경제위기 극복의 비용과 책임을 개별 가정, 특히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부에게 전가하려는 당시의 사회적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주부들의 과소비를 꾸짖는 논조는 사실은 더 낮아진 소득과 실직 상황에 적응하여 지출을 줄이면서도 가족의 재생산 또는 삶을 유지해야하며 가사노동자로서의 이러한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주부의 역할이 부각된 것은 그만큼 주부의 역할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역설적으로 주부들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위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해 왔음을 나타낸다.

V.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구제금융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가계의 합리적 소비가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가계 스스로도 감소된 소득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청(1998a)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비지출은 '97년 1.4분기에 1백48만5천원에서 '98년 1.4분기에 1백35만4천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의 감소는 무조건적인 생활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었다. 즉 살림살이의 긴축은 결코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 곳곳에 숨은 낭비와 비효율을 털어내자는 것이며(중앙일보, 1997.11.29), 소비의 합리화란 맹목적인 절약이 아니라 쓸 것은 쓰면서 줄일 수 있는 것만 줄여나가는 것으로(서울경제, 1998.12.1), 이것은 다름 아닌 노동력 재생산의 질, 또는 생활의 질은 유지하되 지출을 줄이면서 이를 가사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 기사는 IMF체제 이후 가사노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실제로 서울 수유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32)는 대기업 사원인 남편의 월급이 40%나 깎이면서 집 안팎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세탁기로 돌리던 빨래를 손으로 하고, 집

앞 슈퍼마켓을 이용하기보다는 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재래시장까지 걸어가 물건을 산다. 유치원 딸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대신 교재를 사서 직접 가르친다(경향신문, 1998.12.22).

구제금융제 하에서 각 신문은 연일 가계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다루면서 이를 가사노동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에서는 각 가사노동 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식생활관련 가사노동

식생활 영역에서는 외식이 가장 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조선일보는 우리 나라의 외식비 증가율이 일본의 10배이며 (조선일보, 1997.12.9), 지난 3년간 연평균 외식비 증가율은 18.1%로 소득 증가율(12.5%)을 크게 앞지른다고 외식비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우리 나라 가정에서 가장 고통 없이, 가장 눈에 띄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단연 외식비라고 서술하고 있다(조선일보, 1998.1.1). 다른 신문들에서도 알뜰 주부들의 절약 사례를 소개하면서 외식비를 줄이는 대신 이를 가정에서 만든 음식으로 대체할 것을 장려했다(동아일보, 1997.12.6; 조선일보, 1998.1.1; 동아일보, 1998.1.6; 조선일보, 1998.2.25; 동아일보, 1998.12.20).

다른 것은 다 줄여도 먹는 것은 고민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KFC, 파파이스 등에서의 외식을 줄이는 대신 떡볶이, 햄버거 등을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으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눴다(동아일보, 98.12.20), 나들이를 할 때 꼭 도시락을 싸 갖고 갑니다. 또 피자 떡꼬치 등 간식은 집에서 만들어줘요. 같은 비용에 실컷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생 맛 면에서 엄마가 만든 간식의 우수성이 뛰어나지요(세계일보, 1998.2.2).

이와 함께 빵이나 요거트처럼 기존에 시장 상품

을 이용하던 것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었다(한국경제, 1997.12.4; 국민일보, 1997.12.19; 대한매일, 1998.12.26). 매일경제의 한 기사는 빵 만드는 것을 배우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배워서 집사람과 애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빵을 사서 먹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먹는게 IMF식 절약 아니겠어요. 잘만 하면 장차 부업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매일경제, 1998.1.20).

갖가지 채소를 집에서 가꾸어 먹는 것 또한 장려되었으며, 이것은 지출을 절감할 뿐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콩나물 미나리 등은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 우유팩의 아래에 구멍을 뚫고 콩나물 콩을 넣은 뒤 물만 주면 1주일 뒤 먹을 수 있다. 분당에 사는 이모씨(34)는 미나리를 키워 먹는다. 시장에서 뿌리가 달린 미나리를 사다가 윗부분을 잘라 먹은 뒤 남은 뿌리 부분을 물이 든 오목한 그릇에 담가 두면 10일 뒤 다시 미나리를 먹을 수 있다(동아일보, 1998.3.30), IMF환파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주부들이 앞다퉀 인근 공터를 채소밭으로 일구고 있다(매일경제, 1998.7.22).

2. 주생활관련 가사노동

주생활과 관련해서는 집치장대신에 청소를 하라는 극단적인 요구도 있었지만(조선일보, 1998.2.25), 이보다는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갖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하거나 DIY제품을 사용하여 손수 집을 가꾸거나 집수리를 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DIY상품이 IMF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요즘 권할만한 제품은 페인트. 원하는 곳 어디

에나 바를 수 있고 벽지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봄을 맞아 새로이 집안팍을 단장하려는 알뜰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국민일보, 1999.3.27).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이 알뜰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과상자, 헌 옷, 못쓰는 컵, 강통 등 예전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물건들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잘 가공하면 새로 산 것보다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국민일보, 1999.4.10), 마음에 드는 물건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고쳐쓰는 DIY(Do It Yourself)문화가 IMF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DIY는 완성품을 구입할 때 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돼 경제적인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맘뉘리면서 사랑도 다질 수 있어 일석이조(한국일보, 1999.5.27).

주생활과 관련해서 특기할만한 것은 여타 가사노동영역에서의 요구가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진 것과는 달리 주생활 영역은 전통적으로 남성적 가사노동이므로 이에 대한 요구가 남편을 향해서도 명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가장이 변해야 할 때다. 가장의 '집안일 하기'는 더 이상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규모 있는 가게꾸리기의 필수요건이 돼버렸다. 우선 정씨의 남편처럼 집안일 보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목욕탕 하수관이 막히거나 수도패킹이 고장났을 때는 물론 두꺼비집의 휴즈만 나가도 당황해하며 기술자를 부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 평소 집에 간단한 공구를 마련해 놓고 직접 나서 고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쓸데 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중앙일보, 1998.1.8).

3. 의생활관련 가사노동

피복비는 의식비·사교육비와 함께 가장 낭비가 심한 부분인 동시에 지출절감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의복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의복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것이 장려되었으며, 옷을 만들어 입는 방법에 대한 정보 또한 주어졌다. 실제로 백화점 매장에서 사라진 재봉틀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도 보도되었다(국민일보, 1998.1.6; 동아일보, 1998.3.2; 대한매일, 1998.3.9).

고씨는 재봉틀로 신발주머니, 베갯잇 등 만들기 쉬운 것들은 직접 만들어 쓰고, 안입는 헌 옷가지들은 수선해 「새옷」으로 만들 계획이다(조선일보, 1998.2.25),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주부 진모씨(56)는 두 살바기 외손주 옷을 한 벌 사주러 백화점에 갔다가 가슴만 놀래키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천도 몇조각 들이지 않은 아이 옷이 어찌된 노릇인지 10만원대를 호가했기 때문. 궁리 끝에 진씨는 아이에게 직접 옷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 한참 묵혀둔 미싱에 기름을 치고 아이 외삼촌의 남방을 가져다 설명대로 박았더니 감쪽같이 새 아이옷이 나왔다. 한달 반값을 번 딸네가 될 듯 기뻐한 것은 물론(동아일보, 1998.2.24).

세탁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세탁비를 줄이는 것 또한 지출절감 방안으로 소개되었다.

겨울철이 되면서 세탁소 이용이 늘어난다. 한 벌에 5,000~1만원씩하는 세탁비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웬만하면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를 이용 집에서 해결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 배달까지 해주는 동네세탁소대신 백화점이나 대형슈퍼에 설치된 세탁편의소를 이용한다. 세탁물을 직접 맡기고 찾아오는 수고가 있긴 하지만 세탁비가 일반 세탁소보다 30~40% 싸다(한국일보, 1997.12.4).

의복제작과 함께 피복비 절감요령으로 강조된 것은 의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미 옷이 많은 데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새로 옷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의복을 제대로 관리하는 요령이 소개되었다.

요즘 옷은 쉽게 해지지 않아 옷장 안에 옷은 넘쳐나는데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옷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어 눈에 띄지 않는 옷은 일년 내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옷가게부'. 나름의 방식으로 옷관리 노트를 만들어 옷을 관리하면 가족들의 의복구입비를 크게 줄이고 필요할 때 제대로 옷을 내기도 쉽다(국민일보, 1999.1.9).

4. 육아 및 가족생활관련 가사노동

육아 및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육아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이나 유치원교육 등을 품앗이 과외나 가정유치원 등 비용이 들지 않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장려되었으며,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체제하에서 실직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을 위로하는 배우자로서 주부 역할이 강조되었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사교육비가 가장 낭비가 심한 영역으로 지적되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공교육비 부담은 일본과 비슷하나 사교육비 부담은 일본의 3~4배에 이른다(서울경제, 1999.6.29)고 보도하였으며,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과다한 과외비로 파산한 가정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과외로 찢든 가정에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매일경제, 1997.12.22).

이처럼 부담이 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소개된 것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거나 이웃의 인적 자원을 이용한 품앗이과외로 연일 각 신문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거나 품앗이 과외를 하는 사례와 장점이 보도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품앗이과외 모임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방법 또한 소개되었다(경향신문, 1998.1.6; 중앙일보, 1998.1.8; 중앙일보, 1998.1.17; 세계일보, 1998.2.2; 동아일보, 1998.2.23; 대한매일, 1998.5.11; 경향신문, 1998.7.13; 동아일보, 1998.9.27; 국민일보, 1998.12.7; 중앙일보, 1999.5.13).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씨

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줄이기에 나섰다. 시간을 정해놓고 고교생 큰 아들의 물리와 수학을 각각 일주일에 두시간씩 봐주기로 한 것. 얼마 전까지 과목당 30만원씩을 내고 과외를 받던 때에 비하면 가계부담이 크게 준 셈.(중앙일보, 1998.1.8),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주부로 대학시절 조각을 전공한 서모씨는 최근 영문학, 피아노, 바이올린을 전공한 같은 아파트의 주부 3명과 함께 「과외그룹」을 만들었다. 자신은 미술을 가르쳐 주는 대신 딸은 1주일에 한차례 2시간씩 3과목에 걸쳐 「공짜과외」를 받는다. 서씨는 『애를 학원에 보냈다면 한달 평균 25만원은 들었을 것』이라며 『돈한푼 들이지 않는데다 학부모간에 자녀들 교육문제로 의견도 나누게 돼 서로 만족해하고 있다고』말했다(경향신문, 1998.7.13).

또한 통계청(1998d) 조사에서 1998년은 유치원 아동수 및 취학률이 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된 해로 나타날 정도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자녀보육 또한 매우 위축되었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신문지면을 통해 자녀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경우 자녀의 사회성과 학습능력 발달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정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한국일보, 1998.2.10), 동아일보는 주부들이 가정유치원 또는 품앗이 놀이방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주부 박모씨(31). 지난해 11월부터 동네 주부 5명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 '품앗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 6엄 마들은 △색종이 접기를 가르치는 '색종이엄마' △전래놀이를 지도하는 '튼튼엄마'와 '얼씨구엄마'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방글이엄마' △요리놀이를 지도하는 '호호엄마' △피아노 반주를 맡은 '딩동댕 엄마'로 역할을 분담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동아일보, 1998.2.23).

이처럼 구제금융체제하에서는 자녀의 가정교사로

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에서 실직의 공포와 살인적인 경쟁을 겪고 있는 남편을 따뜻하게 위로해야 하는 배우자로서의 주부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휴일에는 쉬게 하라', '위기의식을 함께 가지라', '욕구를 낮추라',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위기에 대비한 책을 선물하라'는 「남편기살리기 5계명」으로 구제금융 신청 직후 만들어져 주부를 대상으로 언론을 통해 보급되었다(국민일보, 1997.12.10). 또한 각 기업체에 부인들이 방문하여 남편을 격려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행사도 이어졌다.¹⁾ 주부의 힘은 가족을 살리고 지탱시키는 새로운 힘이므로 주부들은 가정의 행복을 가꾸어 남편을 행복하게 해야 했으며(매일경제, 1998.5.1),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남편에겐 포근한 느낌과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고단하고 경쟁적인 일터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깝니까(세계일보, 1998.1.31), 남편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보니 집안에서 더 이상 바가지를 긁을 수 없을 것 같아요(한국경제, 1998.1.16).

5. 가정관리관련 기사노동

가정관리과 관련하여 구제금융체제 하의 신문기사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가계부 작성과 합리적인 구매이다.

가계부 작성은 지출절감의 출발점이자 합리적인 가계운영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으로 각 신문에서 연일 강조되었다.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지출이 낭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가계부를 통해 가계의 지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절약의 첫걸음으로 보도되었으며, 이외에도 알뜰 주부의 가계부 작성 사

례, 컴퓨터로 가계부를 쓰는 방법, 가계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등 가계부 작성과 관련한 갖가지 정보가 제공되었다(경향신문, 1997.12.3; 한국일보, 1997.12.4; 문화일보, 1997.12.5; 조선일보, 1997.12.9; 대한매일, 1997.12.12; 경향신문, 1997.12.30; 세계일보, 1998.2.2; 국민일보, 1999.12.7). 가계부의 장점과 이를 통한 절약요령은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7년전 결혼 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는 안씨는 「가계부를 쓰면 가정내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낭비요소가 없는지 늘 살피게 된다」며 「누가 예산에 벗어나는 구매행위를 강요해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서울경제, 1997.12.26). 결혼 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해 14년동안 한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가계부를 쓰다보면 절로 절약이 됩니다. 일단 저축을 먼저 하니 지출액수가 뚝 하지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모자라기 일쑤니까 한해의 예산을 세우는 습관이 몸에 뻗어오(경향신문, 1997.12.27).

이와 함께 알뜰한 가계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은행에 들리는 알뜰 주부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대한매일, 1998.1.1), 금전관리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식생활에서도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과 날짜를 기록한 공책'을 만들어 두거나 전날에 만든 음식재료를 이용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단'을 작성하는 것, 또한 옷가게부나 차계부를 만드는 것도 절약의 일환으로 강조되었다(동아일보, 1997.12.11; 동아일보, 1998.10.30).

한편 구매에 있어서는 충동구매가 가장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장보기 전에 지출계획을 미리 세우고 쇼핑목록을 작성하여 낭비를 피할 것이 요구되었다(동아일보, 1997.12.11; 대한매일, 1998.1.1;

1) 대우계열 오리온전기는 남편과 아빠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사랑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실시했으며(문화일보, 1999.6.7), SK텔레콤, 기아자동차, 삼성화재, LG전자 등에서도 '남편 기살리기 사원부인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한국경제, 1998.1.16; 문화일보, 1999.3.19). 이와함께 송과구와 교보생명에서도 IMF시대 가정을 위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매일경제, 1998.3.13; 매일경제, 1998.4.23).

세계일보, 1998.2.2; 매일경제, 1998.10.15). 제철 식품을 잘 이용하거나 할인 쿠폰을 활용하는 것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소개되었다(한국경제, 1998.6.9; 한국경제, 1998.6.11; 매일경제, 1998.11.13).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주부 박모씨의 주방 싱크대 서랍에는 피자집의 음료쿠폰에서부터 백화점의 무료 주차권과 할인쿠폰, 놀이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보관하는 상자가 있다. 박씨는 얼마전 이웃집 엄마와 아이들 셋을 데리고 63 빌딩에 갔을 때 쿠폰을 제시하고 어른 1만9천5백원, 어린이 1만5천원 하는 종합관람권을 각각 5천원씩 할인받았다. 5명이 함께 혜택을 받았으나 2만5천원이나 절약한 것이다(조선일보, 1998.1.14). 쌀 때 대량구입, 개별포장해 보관한다는게 제 비결입니다. 예컨대 상자째로 단감을 구입하면, 신선도를 상중하로 분류해요. 그리고 하→중→상의 순서로 먹는 것이지요. 쌀 때 사서 먹을 분량만큼씩 냉동보관해놓으면 시간·비용절약이 함께 됩니다(세계일보, 1998.2.2).

또한 백화점은 가격이 비싸고 낭비를 할 요소가 많은 곳이므로 좀 멀고 번거롭더라도 재래시장이나 할인매장, 재활용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장려되었다. 이웃들끼리 서로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는 상부상조적인 교환도 기존의 구매를 대신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매일경제, 1998.2.13; 한국경제, 1998.3.11; 매일경제, 1998.3.24; 한국경제, 1998.6.8).

주부 김모씨는 재래시장에 자주 나가 먹을거리를 챙겨 식탁을 준비한다. 다리품을 조금만 팔면 푼돈도 그만큼 절약되지만 푸짐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일보, 1998.1.31). 결혼 6년째인 주부 안모씨는 요즘 재활용센터에서 구입한 5만원짜리 전자동세탁기만 보면 기분이 흐트해진다. 얼마 전 안씨는 혼수로 마

련한 세탁기가 아주 고장나 더 이상 수리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알뜰주부 안씨는 TV광고에 한창 나오는 신형모델을 구입할까 하다가 구형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안씨는 재활용세탁기를 사 놓고도 썩게 비지떡이 아닐까 걱정했다. 집에와 사용하고 난 뒤 이런 걱정이 싹 가셨다. 갖가지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다 외관도 얼룩자국이 조금 있을 뿐 닦아 놓으니 재활용품이란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았다(한국경제, 1997.12.4).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제통화기금체제하의 신문기사에서는 가사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를 증가시키라는 공적인 요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합리적인 가계관리와 구매를 통하여 노동력 재생산비를 절감하는 측면 뿐 아니라, 의식주 생활 영역에서의 가정생산을 늘리고 자녀를 제대로 사회화시키며 남편의 심리적 욕구를 보살피라는 생계생산 측면에서의 요구도 행해졌다. 저소득과 실직의 시기에 가사노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처해 나가라는 이러한 요구는 가사노동이 노동력 재생산비를 줄인다는 것 즉, 임금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는 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가사노동이 식품과 의복을 생산해 내며, 자녀를 키워내고 남편의 직장에서의 노동력을 향상시켜 주는 인간과 생활을 생산해내는 노동이라는 점 또한 증명해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면서도 비가시적인 그늘경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가정에서의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전면으로 드러냄으로써,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가정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체제라는 특수한 한 시기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 신문기사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경제 위기는 가정주부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가정주

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경제 위기의 시기에 감소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늘리라는 공적인 요구가 가사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활발하게 행해졌다는 것이다.²⁾

이러한 결과는 노동력재생산 노동 또는 생계생산적 특성을 갖는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 이후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보는 공사분리의 관점은 가정을 휴식의 영역으로, 여성을 정서적 생활을 제공하는 전문가로만 개념화했으나(조은·이정옥·조주현, 1997:24), 본 논문의 결과는 이러한 공사분리의 개념이 허구이며 가사노동이 '낭만적 사랑'의 표현이 아닌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실질적인 노동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여성의 무보수노동은 공사영역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그들의 무급노동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각 가정에서 출발하여 경제위기의 완충기제로서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증명하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접근을 시작함으로써, 가사노동을 공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수동적인 노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를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개별 가정의 입장에서도 가사노동은 충분히 자율성·주도성을 갖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그의 재생산적·생계생산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또 한편에서는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가정이 주체적으로 가사노동의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측면, 또는 소득 감소의 시기에 완충기제로서 가사노동을 이용하는 측면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살펴보는 작업 또한 후속연구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화폐적 접근만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하나의 노동 형태로서의 평가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회와 정책의 공감(이기영·송혜림, 1993)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경향신문』

『내외경제』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김정선(1992). 여성학에서의 재생산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2.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문숙재·윤소영(1996). 가사노동의 사회적특성과 공적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199-210.

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2)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경제위기 이전 시기와 비교됨으로써 가장 타당하게 입증될 수 있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이전과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신문기사에서 행해진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의 빈도를 비교해보고자 시도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 이전 시기인 1997년 1년 동안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라는 요구를 포함한 기사를 본 논문에서 분석된 모든 신문에서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던 가사노동이 경제위기와 함께 공적인 이슈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저임금을 보완하는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잘 보여준다.

- 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31-150.
- _____ (1993).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3-24.
- 석드보라 · 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 인식과 사회화저 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6.
- 송혜림 · 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서울대학교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15권, 15-28.
- _____ (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서구 산업사회화 한국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관점들,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6차 학술대회 자료집*.
- 윤소영(1999). 가사노동의 정책요구 및 정책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31-42.
- 이기영 · 송혜림(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56-66.
-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환 · 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69-386.
- 조은 · 이정옥 · 조주현(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1998a). 98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동향.
- _____ (1998b). 9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동향.
- _____ (1998c). 98년 6월 고용동향.
- _____ (1998d). 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1998). *IMF체제 전후 소비자의식 및 행태 비교*.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 홍승아(1998).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1-22.
- Carmen D. Deere(1976). *여성평우회 편(1985). 제3세계 여성노동*. 서울 : 창비신서.
- Chadeau, Ann(1985). Measuring household activities :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237-253.
- Goldschmidt-Clermont, L(1982). Unpaid work in the household : A review of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 *Women, Work and Development Series, No.1.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C. v. Werlhof · M. Mies · V. Bennholdt Thomsen (1982). *강정숙 외 역(1987). 여성, 최후의 식민지*. 서울:한마당.
- Paul Smith(1978). *강선미역(1986). 여성과 생산양식*. 서울:한겨레.
- Stauth, G.(1984). *이효재편(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 까치.
- Vogel, L.(1983). *이효재편(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 까치.